

일 주 문



국회 정각선원서 법문 정찬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스님은 10월 7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육조해능선사의 일화를 주제로 법문했다.



금강대 청년일자리 창출 특강 한광수 금강대 총장은 10월 7일 본관 5층 사이버강의실에서 '청년고용정책과 진로지도' 특강을 개최했다.



법림대구선원 개원법회 이제열 대구 법림대구선원 선원장은 10월 24일 오후 2시 법림선원 개원법회를 봉행한다.(053)628-0108



제15회 삼국유사학술문화제 정진원 동국대 연구교수는 10월 15일 군위 인각사에서 열린 제15회 삼국유사학술문화제에서 대상인 문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법보신문, 독립언론 10주년 기념법회

법보신문(대표 남배현)은 오는 10월 27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독립언론 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남배현 법보신문 대표는 "독립 언론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바른 언론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독립 언론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수의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100세 선도 스님, 동국대에 장학금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직무대행 정운길)는 10월 15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선도장학회(이사장 선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선도 스님은 경남 통영 신광사 주지로 불교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불자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해 2002년 전 재산을 동국대 경주캠퍼스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선도장학회를 설립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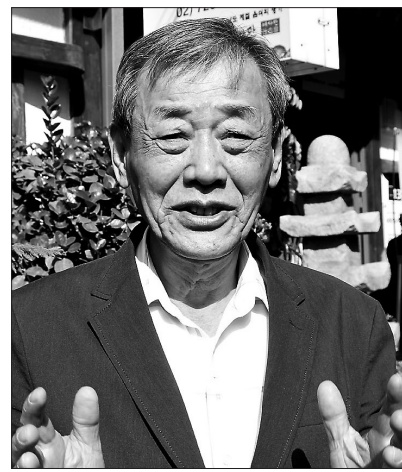
올해 100세를 맞은 선도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해 3명의 학생에게 총 3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선도장학회 장학금 전달에 이어 개최된 태영장학회(이사장 김광호)와 나무심장학회(이사장 김순이)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4명의 학생이 총 4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노덕현 기자

“민족 정체성 수호한 만공 스님 유공자 선정돼야”

이은운 경허·만공선양회 자문위원(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기자)

조선불교계에 대한 일본의 내선일체 정책이 강력 항거한 것으로 알려진 만공 선사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경허·만공 선양회가 만공 스님을 일제 식민지 불교정책에 항거한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나 현재 심의 보류 상태다. 이에 경허·만공선양회 자문위원인 이은운 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기자(사진)는 10월 13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시대가 발전되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면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개념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항일독립운동을 인정하는 기준이 폭탄 투척, 무력투쟁, 투옥 등을 삼는데 이것은 형이하학적이고 문화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나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 대열에 낀 우리나라의 수준을 고려하면 정신적인 측면을 봐야한다. 그 투쟁이 오히려 값지다고 볼 수 있다.

정신적 항일독립운동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바로 만공 선사이다. 이제부터 독립운동의 개념을 새롭게 확립해야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만공 스님은 식민정책에 의해 왜곡된 조선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조선불교의 전통 수행방식을 왜곡시키려 하자 총독에게 호통을 친 일화는 유명하다. 1937년 3월 11일 총독부가 조선 13도 도지사 및 31본산 주지들을 초청하고 ‘조선불교 진흥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 ‘진흥책’은 조선 승려들이 일일식 혼례를 올리게 하고 음주와 육식을 하게 하는 등 조선불교의 전통을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만공 스님은 前 총독 데라우치는 조선불교를 망친 사람으로, 전 승려로 하여금 대저, 음주, 식육을 마음대로 하게 해 부처님의 계율을 파하게 한 불교에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조선불교에 대한 간섭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이 외에도 만공 스님은 1941년 식민 불교정책 항거를 위한 고승대회를 주



만공의 할, 일제 끝수 풍비박산 시켜 항일독립 본질인 민족 정체성 사수 총독 꾸짖은 일, 생사초월의 항일 “독립운동 개념 새롭게 확립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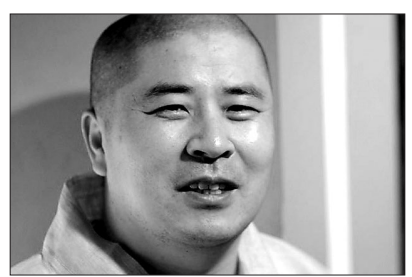
도하고 1942년 조선광복을 기원하는 천일기도를 하기도 했다. 이은운 위원은 “독립운동의 최종 목표는 민족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5천년 동안 민족 정체성을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건물 전경

지켜왔기에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황하 갠지스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등 고대문명은 모두 소멸됐지만 중국만은 중화민국이라는 문명이 버텨 살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공 선사도 어전회의에서 당시 절대 권력인 미나미 총독을 향해 목숨을 걸고 항을 했습니다.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일본을 꾸짖은 것입니다. 생사를 걸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잠시 후 이은운 위원은 격양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할을 함으로서 일제 침략의 핵심인 우리 민족의 정체성 말살 야욕에 도끼질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폭탄을 던진 것 보다 몇 배의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공 스님의 할은 무한한 정신적이고 형이상학

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독립운동 개념과 유공자 선정 기준이 발전돼야 하고 수정돼야 하지만 관계자가 세속적인 인식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도 어떻게 보면 행동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단계 더 진화한 다른 차원의 영원한 독립을 지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한한 정신적 가치를 높게 사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은운 위원은 “만공 선사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돼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며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삼정공영서 범에 만에 스님을 만나 독립운동자금으로 쓰라며 돈을 전해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제가 한국불교를 다 매수하고 조작해서 일본불교와 합치려 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선학원을 설립해 유교법회를 주도 했다는 점도 큰 공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불교계가 만공 선사의 민족정신을 후학들도 본받고 선양할 수 있도록 독립 유공자 선정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김주필 기자



“편견을 넘어 골프 포교에 도전합니다”

‘제1회 종교화합 골프대회’ 여는 천상 스님

히 박세리, 양용은, 배상문, 최경주 등 수많은 골퍼가 한국의 위상을 올리며 특히 배상문은 불자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프 대회는 2015년 프레지던트 세계골프대회 성공기원, 광복 70주년 및 신장 장애 후원을 위해 개최됩니다. 현재 천상 스님은 한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관광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오마이골프 협회는 ‘세계 최초 제1회 종교 화합 골프 대회’를 10월 21일 오전 11시 경주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경주 시의원 과 함께 티업 시타에 나선다. 스님은 골프에 대한 편견을 깨고 나

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미국에서의 생활이 가장 큰 영감이 됐다고 했다. 스님은 미국에서 미8군 용산부대 군인에게 참선과 관선무를 지도했다. 한의학 석사, 미국 한의사 자격증 취득, University of West 종교 불교학 박사 과정 수학 및 시민단체 운동을 통한 유학생과 이민자 돕는 일도 담당했다. 앞으로 스님은 국제관광연합회 활성화, 오마이골프협회와 정기적 골프대회 행사, 베스트경전독송집 엮음 CD 제작, 붓다 골프와 반야심경 책 출판, 관선무 영어 교본 출판 등 국제적 교류 활동과 한국 포교와 방송과 문서 포교에 매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국군교도소 자장면 공양·수계법회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0월 14일 장호원 국군교도소 법당 원등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을 계사스님으로 20명의 수용자가 수계를 받았다.

이날 수계법회에 앞서 국군교도소 수용자 100여명과 교도소 관계자 등 총 300여명과 함께 여주 송암사 법진스님과 봉사자들의 후원으로 자장면을 공양했다. 노덕현 기자



제3회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는 10월 8일 부산 천마산 약수사에서 제3회 사하구민을 위한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하불교연합회 회장 혜우 스님, 사하구불교연합신도회 김홍남 회장, 이경훈 사하구청장, 조정태 국회 의원 및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 혜우 스님은 “불자의 밤 한마당을 통해 사하구민의 행복을 열고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 행사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로터스월드, 수원시와 양해각서 체결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10월 14일 수원시청에서 캄보디아 프놈프라움-수원마을 3단계 지원사업 협력을 위해 수원시(시장 염태영), (사)행복감(이사장 홍순목)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로터스월드는 내년부터 3년동안 진행되는 3단계 지원사업을 통해 프놈프라움-수원마을 중, 고등학교 신축 △ 학교 신축에 따른 마을 도로 정비 및 통학로 확보 △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전신주 교체 및 전선정리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로터스월드는 11월 17일 캄보디아 프놈프라움-수원마을에서 3단계 지원사업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칩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 학과      | 학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 의 학 과 | 5년 | 40명  |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br>·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 석 사 과 정 | 3년 | 10명  | · 입학신청서 1부                         |
| 박 사 과 정 | 3년 | 10명  | · 여권용사진 10매                        |
|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

**2 학교소개**

- ▶ 세계최고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 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시스님 추천자

**5 문 의 처**

☎ 전화: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중의대 칩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